

광주 첨단 정부합동청사 시대 개막

■ 기존 건물·부지 어떻게 쓰이나

국세관련 교육장·복지센터로 활용

내년 초까지 이전 완료... 조달청엔 서구청 입주

광주지방국세청을 비롯해 광주지역 11개 공공기관, 500여명의 직원들이 올해 12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복구 오프딩에 위치한 합동청사로 이전한다.

가 이전할 것으로 보인다. 서광주세무서가 이전할 경우 상주인구는 221명에서 200여명으로 감소될 전망이다.

육센터로 활용한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광주세관의 상주인구는 70명. ◇광주지방조달청(서구 농성동)=부지 7천41㎡(2천130평), 건물면적 5천784㎡(1천700평)의 광주지방조달청에는 광주 서구청이 입주한다.



19일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준공식을 계기로 광주지역에서 '행정타운 시대'가 열린다. 광주합동청사는 대지 면적 48만575㎡, 건물 47만911㎡, 지하 2층, 지상 17층 규모로 총사업비 869억원이 투입돼 2년 여 만에 완공됐다. /위경량기자 jrwi@kwangju.co.kr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준공에 따라 '신 행정 타운' 조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광주 첨단산업 단지 일대 상권이 지지개를 켜고 있다.

인근 음식점 모처럼 '생기' 건물 신·증축 증가... '신행정타운' 조성 기대 일부 주민들은 팔려고 내놨던 아파트를 다시 거둬들이고 있으며, 아파트 매도 시점을 청사 본격 가동 이후로 늦추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친환경 프로젝트 진행해야”

영산강 수질개선 토론회... 최인기 의원 “뱃길 복원 필요”

영산강의 수질을 대폭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업 추진에 앞서 지역 주민과 수자원 관리자 및 이용자들의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읍 지역민들의 지지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또 박성천 동신대 교수도 “영산강의 수질 개선은 일차적으로 양질의 공업 및 생활용수 확보를 가능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남도의 친환경 이미지를 제고시켜줄 것”이라며 “충분한 재원 마련과 각종 오염원을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정부 합동청사 입주 현황

Table with 3 columns: 기관 (11개), 인원 (556명), 입주시기. Lists various government agencies and their staff counts and move-in dates.

거리로 위치하고 있어 뚜렷한 상권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신청사가 대로 변으로 전진배치돼 인근 상권은 어느 정도 특수를 누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광주지방보훈청(남구 주월동)=상주 인구 57명을 보유한 현 광주보훈청 부지와 건물은 아직 용처를 찾지 못한 상태다.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해 공적인 활용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립식물검역소 호남지원 광주사무소(북구 임동)=부지 1천552㎡(470평), 건물면적 253㎡(76평)에 달하는 현 광주사무소 역시 국유재산법에 따라 처분될 예정이다.

◇기타=광주지방노동청·전남지방노동위원회·국립수의과학검역원 광주출장소·국립식물검역소 광주출장소·문화체육관광부 불법저작물 상설단속반 등은 건물 일부를 임대해 사용한 상태여서 계약과정만 남게 놓고 있다.

합동청사 인근 음식점들도 모처럼 활력을 얻고 있다. 입주 공무원들을 겨냥해 식당 내·외부를 리모델링하고 메뉴를 '실속형'으로 바꾸는 등 업소들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이다.

식당가에는 직장인들이 점심 식사로 선호하는 김치찌개와 설렁탕 등으로 메뉴를 바꿨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내걸리고 있다. 합동청사 개청의 영향을 체감하고 있는 식당가와 부동산 업체 외에도 첨단지구의 크고 작은 마트, 산업단지 입주 업체들은 위축된 상권을 살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토론회로 나선 김창원 영산강뱃길연구소장은 “영산강은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배가 운항했던 곳으로 하구엔 설치된 통선갑문(폭 6m)을 새로 건설하고, 그동안 방치했던 퇴적물을 걷어내 주기만하면 뱃길은 자연히 살아난다”면서 “영산강뱃길복원사업에는 시민단체가 반대하는 인공수로도 없는 만

“5+2 광역경제권’ 지역 불균형 초래” 지방-수도권 상생발전 세미나

18일 광주여성발전센터에서 열린 '지방-수도권 상생발전 세미나'에서는 지방발전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광주기독교사회책임” 주제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 오재일 전남대 교수는 “지방행정체제와 광역경제권은 별도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5+2광역경제권'구상은 역사성을 도외시키고 현재의 불균형을 고착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현재 같은 Top-Down식이 아닌 Bottom-Up

방식을 취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인프라 구축을 하고 분권화시켜 지역간 선의의 경쟁과 상호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뒤 중앙정부는 평가를 통한 정책의 일관성과 효과성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규우 인하대 교수는 “세계화시대에 국내의 지역간 경쟁은 물론 국경을 넘어선 지역간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지역간 경쟁을 위해서는 지역정부의 규모와 역량의 집적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도, 서울과 균형발전을 주장하기 전에 광주와 전남으로 쪼개서 분산시켜 놓은 집안살림부터 모아서 집중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임 조성위원 “문화전당 설계 원안 존중해야”

옛 전남도청 별관 논란의 장기화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공사가 중단된 가운데 역대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들이 “문화전당의 설계 원안을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최원 아시아문화조성위원장(이하 조성위)은 18일 광주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광주·전남 지역 역대 조성위원장, 위원 간담회'에서 전임 위원들이 이같이 밝혔다고 전

했다. 참석자는 화가 황영성, 강연연씨, 박경 아시아문화전당 건립 공사가 중단된 가운데 역대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들이 “문화전당의 설계 원안을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최원 아시아문화조성위원장(이하 조성위)은 18일 광주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광주·전남 지역 역대 조성위원장, 위원 간담회'에서 전임 위원들이 이같이 밝혔다고 전

Advertisement for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Public Brokerage Specialist School) featuring '최종 행정고시학원' (Final Administrative Exam School) and '19회 시험 전국 최다 합격자 배출!!' (19th exam nationwide highest number of passers!!).

Advertisement for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Public Brokerage Specialist School) featuring '44년 전통' (44 years of tradition) and '본원출신 전국수석 (송은영님 평균 96.7점)' (Top scorer from the school nationwide (Song Eun-young, average 96.7 points)).

Advertisement for '7.9 급 공무원 특강' (7.9 Grade Civil Servant Special Lecture) and '무등고시학원' (Mudeung Exam School) with contact info 222-4560.

Advertisement for '한의대 유학! 국내에서 가능!' (Study in Korea! Possible in Korea!) for SCU한의대 (SCU Hanui University) with contact info 010-6834-6253.